

고용노동부, 중동 전쟁 및 대전 대덕구 화재 사고 관련 긴급 상황점검회의 개최

- 중동 전쟁에 따른 지역·업종별 고용 상황점검
- 안전앞에 그 어떤 타협도 있을 수 없다는 각오로 유사사고 방지를 위한 사업장 화재·폭발 예방 지도·점검 철저 당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3월 23일(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전국 7개 지방고용노동청장 및 본부 실·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동 전쟁 및 대전 대덕구 화재 사고에 관한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이 지역·업종별 고용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한 대전 대덕구 공장화재 사고 대응 및 유사사고 예방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고용노동부는 중동 전쟁에 따른 고용상황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장기화 될 경우 석유화학·철강 등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업종 등을 중심으로 고용 여건에 영향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지역·업종별 고용 상황을 보다 면밀히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우선, 고용상황 악화가 예상되는 지역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여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우대 지원하고, 분쟁 장기화로 특정 업종에 위기 심화 시 산업별 협회 등 유관기관 의견 수렴 및 업종별 고용 상황을 고려하여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도 검토한다.

고용상황 악화 시 증가할 수 있는 실업·체불 노동자의 생활안정도 지원한다. 구직급여, 내일배움카드 훈련수당 지급 등을 토대로 실업자들의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돕고,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발생한 체불 청산 지원 및 체불노동자의 생활안정자금 융자도 적극 지원한다.

경기 둔화에 영향을 받는 청년 등 신규 입직자를 위한 취업지원과 훈련, 재정지원도 강화한다. 청년 구직자 등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 지원과 구직촉진수당 등을 신속 지원하고 첨단 산업·디지털 기술 등 역량을 키우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훈련 수당 등도 지원한다. 지역 기업 중 청년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을 지원하여 청년 채용을 독려한다.

이어서, 지난 20일 발생한 대전 대덕구 공장 화재 사고 대응 상황을 보고 받은 김영훈 장관은 산업안전보건본부와 대전고용노동청에 철저한 사고원인 규명과 함께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그 과정과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필요한 지원을 신속히 제공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화재·폭발 사고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봄철 사업장 화재·폭발 예방 지도·점검을 철저히 진행하고 확인되는 위험 요인은 즉시 시정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김영훈 장관은 “위기가 시작된 뒤 대응하면 이미 기업과 노동자들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라며, “지역과 산업별로 노동시장의 작은 변화와 신호도 세밀하게 살피고 대응해 선제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화재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은 재해노동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과 부상자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하며, “전국 지방 관서는 유사한 사고가 언제든, 어디서든 반복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재발 방지를 위해 사업장 화재·폭발 예방 지도·점검을 더욱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담당 부서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	책임자	과 장	최영범 (044-202-7026)
		담당자	서기관	장지훈 (044-202-7027)
			사무관	김진영 (044-202-7028)
			사무관	차정환 (044-202-7032)



중동 전쟁 및 대전 화재사고 관련 모두말씀

안녕하십니까, 장관입니다.

오늘은 매우 엄중한 상황 속에서

긴급히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최근 중동 지역의 무력 충돌이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중동 수입과

경제의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구조상

에너지 가격 변동, 물류 차질, 해외 수요 위축 등이

업종별 고용 상황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위기가 시작된 뒤 대응하면

이미 기업과 노동자들은 고통을 겪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예측이 아니라,

현장에서 즉시 포착하고 선제 대응하는 실행력입니다.

전국 지방관서는

지역별, 업종별 고용동향을 보다 촘촘히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석유화학, 철강, 항공 등 영향을 받는 업종을 중심으로
사업장 상황과 고용 변화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지난주 금요일 대전에서 발생한 공장 화재는
우리 산업현장의 안전 수준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매우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화재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은
재해노동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부상노동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산업안전보건본부와 대전고용노동청은
관계부처와 함께 합동 감식 등을 통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사업장 내 화재 예방 조치 미흡 등 법 위반 여부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통령께서 당부하셨듯이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을 신속히 제공하고
사고 조사 과정을 유가족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십시오.

유사한 사고는 언제든, 어디서든 반복될 수 있습니다.
화재·폭발은 단 하나의 실수도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고가 발생한 기업의 경우
자동차 엔진 핵심부품을 생산하는 기술력을 인정받은
지역의 중견기업이었다는 점에서,
그 어떤 기술 개발 경영 혁신도 안전이 담보되지 않을 때
허망할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전국 지방관서는
관내 고위험사업장은 전수 점검하겠다는 각오로
봄철 사업장 화재·폭발 예방점검을
철저히 진행해 주십시오.

안전 앞에 그 어떤 타협은 있을 수 없습니다.
현장에서 확인되는 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과 함께
노동시장의 안정과 일터의 안전을 지키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